



바꾸자 그리고 희망을 쏘자 한국불교의 희망찾기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이다. 때로는 사람의 의지로 되지 않는 것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두려운 것이 아니다. 정작 두려운 것은 '희망'이 없는 것이다. 아직도 고치고 해결해야 할 것들이 많지만 그래도 불교는 여전히 '희망'적이다. 부처님 가르침

을 구현하고자 지금도 끊임없이 노력하는 스님과 불자들. 이들은 어떤 꿈을 꾸고 있고, 무엇을 하고 싶어 하고,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 조계·태고·천태·진각종 총무원장과 통일원장, 그리고 불교계 주요 단체장들의 꿈과 희망, 새 해 계획을 통해 불교의 '희망'을 찾아본다.



2004 · 갑신년
현대불교 창간 10주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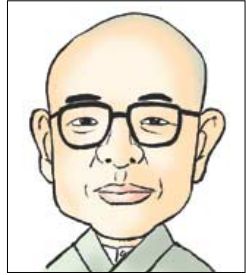
“꿈은 이뤄진다” 새해엔 이렇게 뛰립니다



법장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변화의 틀 다지기에 주력

올해는 종단 안정을 바탕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변화의 기틀을 굳게 다져나가는 데 역점을 둘 생각이다. 우선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건립불사가 끝나고 새 청사 시대가 열리는 만큼 조계종이 새로운 이미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종단 조직체계 진단 결과를 토대로 총무원을 새롭게 변모시키고, 종단발전을 위한 장단기 종합계획을 마련할 것이다. 외부적으로는 활발한 대사회 활동과 포교를 바탕으로 불교의 이미지를 높이는 데 주력할 생각이다.



운산 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전통문화센터 건립 원력

지난 한 해 동안의 태고종은 원융화합을 통한 변화와 개혁에 대한 종도들의 의지를 결집하는 해였다. 새해에는 이러한 종도들의 참여를 토대로 총무원장 취임 이후 지난 2년간 추진해 온 각종 개혁불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불교계는 물론 사회에 일하는 종단, 존경 받는 승가의 이미지를 심어 나갈 것이다. 또한 불교전통문화센터 건립을 위해 모든 종도들의 원력을 하나로 모아 종단의 발전과 증흥에 진력하는 한편, 동방대학원대학의 개교 등 종단의 교육불사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운덕 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남북 교류 등 지속 추진

올해 '나누며 하나되기 운동본부'를 중심으로 남북불교교류를 비롯한 의미 있는 여러 불사들이 모든 종도들의 참여 하에 계속 진행될 것이다.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될 경우 가을에 대각국사 의천 스님의 열반일 행사가 동북아 불교지도자들이 참여하는 국제행사로 치러질 예정이다. 또한 전태유물전시관을 올 초에 착공함으로써 민족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에 우리 종단이 본격적으로 나서게 된다. 불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가 있기를 기대한다.



효암 정사
(진각종 총무원장)

조직정비 통해 포교 활성화

포교 활성화를 위해 현재의 교구를 효율적으로 분할하고, 실행조직체계의 정비를 통하여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함과 동시에 신교도들의 재교육을 짜임새 있게 운영하고자 한다. 우리 종단에 일찍이 있었던 법노장 제도가 바로 구역중심의 포교정책이며, 법노장들이 지역 포교의 주체로 나서도록 이끌 계획이다. 신교도들의 오랜 바람인 탐묘원의 건립과 울릉도 금강원 성지 개발을 통한 재원 발굴도 올해 중점을 둘 방침이다. 이는 진각종의 대중화에 기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어린이 지도 프로그램 개발·보급 정여 스님(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협회장)

미디어 시대에 걸 맞는 어린이지도자 양성을 위해 애니메이션과 인터넷을 활용한 어린이지도자교육프로그램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또한 레크리에이션 단체와의 교류·협력을 통해 각 사찰 및 어린이단체들에게 보다 재미있고 흥미진진한 프로그램을 보급, 어린이법회뿐 아니라 여름·겨울 수련대회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불교상담대학 설립·법인화 정덕 스님(불교상담개발위원장)

내년 4월이면 설립 5주년을 맞는 상담개발원은 교육부 정식 인가를 받은 '불교상담대학원 설립'과 '사단법인화 추진'이라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공신력을 인정받은 단체로 거듭남으로써 상담원들이 전문적인 자격을 갖추고 전국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나갈 것이다.

세계여성불자대회 준비 5월 매듭 본각 스님(제8차 세계여성불자대회 추진위원장)

6월27일부터 열리는 '제8차 세계여성불자대회'는 출·재가 여성 불자들이 모두에게 의미 있는 큰 행사다. 따라서 새해에는 한국 여성 불자들의 위상과 권익향상에 기여할 이번 대회를 내실 있게 치러내는데 온 힘을 쏟고자 한다. 세계여성불자연합의 한국지부 설립을 준비하는 등 국·내외 여성불자들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된다.

정토회운영 좀더 체계화 추진 유수 스님(정토회대표)

새해에는 부처님께서 인도 전역을 걸식하면서 어려운 이들을 돕고 교화하시던 모습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다. 행복은 물질에서 오는 것이 아닌 만큼 정신세계를 중요하게 만드는 데 정진하겠다. 새해는 4차 천일결사 마지막 해다. 현재 부처님의 가르침은 일부 사람들의 전유물처럼 돼 있다. 불자들이 수행의 주제로 나서 피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있도록 하겠

다. 마지막으로 정토회 운영을 좀 더 체계화하고자 한다.

학술·조직·재정 활성화 주력 이명래(한국불교학회)

새해에는 학술, 조직, 재정의 세 측면에서 한국불교학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학술적으로는 자유로운 연구발표의 장이 되고, 조직적으로는 회원들 간의 유대와 애정이 돈독해져 조직이 활성화되길 바란다. 재정적으로는 발표회·논문집 발간·연구여건 확충을 위해 재정적인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도록 회원들과 함께 노력할 계획이다.

재가불자 참여공간 마련 주력 박광서(참여불교재가연대 상임대표)

재가불교 지도자들을 찾아다니며 불교 발전을 위한 비전을 구하고 싶다. 현재 재가불교 지도자들은 꽤 있지만 상호 교류가 부족한 것 같다. 서로가 불자인지도 모르고 모르는 상황에서 조직화란 요원한 일이다. 한 가지 한 가지 아이템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커다란 틀이 중요한 때다. 그 틀거리를 만드는 데 올 한해 정진하겠다.

'원효 일대기' 현대무용극 기획 손재현(동국대 체육학과 무용전공 교수)

불교무용은 현재 영산재와 같은 의식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대중들이 불교무용을 무겁고 지루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 새해에는 서양과 동양이, 전통과 현대가 공존한 대중무용극들이 많이 개발됐으면 좋겠다. 대중들의 눈높이와 기호에 맞춘 불교무용 공연들이 활성화 되면 관객들은 저절

로 공연장을 찾을 것이고 무용을 통한 포교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

불교국가지원사업 등 추진 최명준(대한불교진흥원 사무국장)

대한불교진흥원은 올해 불교국가에 눈을 돌릴 계획이다. 공공불교의 활성화를 위해 특별지원과 장학사업, 한국불교문화원의 설립 등을 준비 중이다. 또 미얀마와 캄보디아에 컴퓨터도 전달할 예정이다. 한국불교계가 힘을 합쳐 부처님의 정법이 전 세계에 구현되는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화합·상생정신으로 보살도 실천 노옥섭(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장)

갑신년 새해 우리에게 해쳐 나가야 할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정치와 사회가 더 큰 안정을 찾고 경제와 문화가 발달하기를 소망한다. 다행히 올해는 국내외의 각 기관의 우리 경제에 대한 전망이 밝다고 한 전망을 현실화하는 것은 국민 모두의 몫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모두가 더 밝은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화합과 상생의 정신으로 보살도를 실천하여 우리의 꿈과 희망을 실현하길 바란다.

청년인재양성 교육사업 매진 정상욱(대한불교청년회장)

불교계를 이끌어갈 청년불자 양성!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에 이를 올 한해는 리더십 교육을 시작으로 청년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에 매진할 계획이다. 또한 조직사업의 일환으로 군불교위원회로부터 전역자 명단을 입수, 대별정 산하 지구별로 청년회원을 모집해 지역청년회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정여 스님



정덕 스님



본각 스님



유수 스님



노옥섭



정상욱



이명래



박광서



손재현



최명준



정상욱

우 · 리 · 절 · 은 · 불 · 자 · 여 · 러 · 분 · 을 · 사 · 랑 · 합 · 니 · 다

우리절 정기기도 · 법회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일요법회
-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자녀 및 입시기도 목련사랑법회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 오후 3시 특별대비주기도회
- 매월셋째 화요일 오후 2시 ~ 4시 부산 동 선 회 법 회
- 끈지암터미널 - 우리절 셔틀버스 운행

끈지암 우리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절은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대비주 기도도량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 오후 3시, 장장 5시간에 걸쳐 논스톱으로 올리는 대비주 기도에 불자들의 모든 바램을 한번 멋지게 걸어보십시오. 그리고 또한 우리절은 온갖 정성을 다 기울여 선망조상 영가님들을 천도하는 역시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천도재 기도도량입니다. 주[대비주 = 신묘장구대다라니]

◆ 교통편

1. 강변역 → 광주 → 끈지암 1113-1
2. 잠실 → 모란 → 광주 → 끈지암 500-1
3. 양재 → 모란 → 광주 → 끈지암 500-2

[III-1030] 기도봉행

<제3차 1030일 지장천도기도>

○ 입재 : 2003년 11월 2일 ○ 회향 : 2006년 8월 27일

원단법회

○ 일시 : 2004년 1월 4일(일) 오전 10시